

치기공과 학생의 전공선택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

정효경, 광동주, 최주영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Convi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Hyo-kyung Jung, Kwak-Dong Ju, Choi-Ju Young
Dep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following study analyzes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convi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It is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th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n effective way to train professionals of the college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dental technology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18.0.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reliability, frequency, multiple-way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o test for significance on each item, $p < 0.05$ has been decided as a standard.

Resul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tudents' age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br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selection conviction, career decision level and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has been found to bring significance mediating effects in relation to major selection convi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Conclusion: To improve the quality and pride as a professional as well as satisfaction with major selection can be expected to raise the standard of th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 **Key words :** dental technology, major selection conviction, career decision level, professionalism

교신저자	성명	정 효 경	전화	053-320-1867	E-mail	hkjung@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접수일	2015. 10. 29		수정일	2015. 12. 17		확정일	2015. 12. 22

I. 서론

매슬로우(Maslow, 1943)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안전의 욕구, 애정과 사회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의 욕구가 있다. 이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인간의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일 또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정혜연, 2009).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관심 등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최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자,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Tolbert, 1980; 심호규와 강문희, 2007).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교육부, 2013). 즉 전문대학은 적절한 진로결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을 들여다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고민은 배제되고,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은 대학생이 된 이후 전공에 대한 불만과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최영재, 2015).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더라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수반되지 못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허예라, 2006).

즉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로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강명숙, 2015).

한편 치기공과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공 선택 과정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전문직업성을 간과하는 교육과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이화식 등, 2011). 이는 안정적인 진로결정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치기공과 학생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부족으로 인해 직업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직업성을 매개로 치기공과 학생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규명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학생의 전공선택확신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결정수준 제고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D대학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9월 21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부적절한 5부를 제외한 195부(97.5%)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89(45.6)
	Female	106(54.4)
Age	20	58(29.7)
	21	35(17.9)
	22 over	102(52.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rade	Grade 1	66(33.8)
	Grade 2	72(36.9)
	Grade 3	57(29.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94(48.2)
	Yes	101(51.8)
Total		195(100.0)

2. 연구도구

1) 전공선택확신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1984)의 진로결정척도(ACDM) 가운데 전공선택확신검사(ACDM-Major)를 고향자(1993)가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1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3번과 6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공선택확신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대학 전공에 대한 확신과 흥미 등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공선택확신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88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1980)의 진로미결정검사(CDS)를 고향자(1993)가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번과 2번 문

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의 경우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갈등 등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78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3)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순(2012)의 델파이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직업성의 핵심요소를 치기공과 학생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직업성의 경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질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업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929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Tes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M±SD	Question	Cronbach's α
Major selection conviction	3.321±0.615	11	0.888
Career decision level	3.277±0.548	18	0.878
Professionalism	3.196±0.649	11	0.929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선택확신, 진로결정수준, 전문직업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확신, 진로결정수준, 전문직업성 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원일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선택확신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하여 $\alpha=.05$ 의 유의수준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전공선택확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확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3-1)과 같이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전공선택확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mu=3.40$)이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학생($\mu=3.23$)에 비해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진로결정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3-2 와 같이 연령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2세 이상($\mu=3.07$), 21세($\mu=3.20$), 20세($\mu=3.26$)의 순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1. Differences in major selection conv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M±SD	F	p
Gender	Male	89(45.6)	3.27±0.72	0.162	0.688
	Female	106(54.4)	3.36±0.51		
Age	20	58(29.7)	3.35±0.58	1.327	0.268
	21	35(17.9)	3.42±0.55		
	22 over	102(52.3)	3.27±0.66		
Grade	Grade 1	66(33.8)	3.40±0.56	2.247	0.109
	Grade 2	72(36.9)	3.25±0.67		
	Grade 3	57(29.2)	3.32±0.6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94(48.2)	3.23±0.58	5.976	0.015
	Yes	101(51.8)	3.40±0.64		

Table 3-2.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M±SD	F	p
Gender	Male	89(45.6)	3.21±0.73	0.528	0.468
	Female	106(54.4)	3.19±0.57		
Age	20	58(29.7)	3.07±0.65 ^a	3.147	0.045
	21	35(17.9)	3.20±0.48 ^a		
	22 over	102(52.3)	3.26±0.69 ^a		
Grade	Grade 1	66(33.8)	3.15±0.68	1.885	0.155
	Grade 2	72(36.9)	3.23±0.61		
	Grade 3	57(29.2)	3.20±0.6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94(48.2)	3.18±0.62	0.372	0.542
	Yes	101(51.8)	3.21±0.68		

주: Scheffea,b

3. 전문직업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3-3>과 같이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전문직업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mu=3.35$)이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학생($\mu=3.20$)에 비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질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3.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M±SD	F	p
Gender	Male	89(45.6)	3.27±0.63	0.039	0.844
	Female	106(54.4)	3.28±0.48		
Age	20	58(29.7)	3.30±0.52	0.376	0.687
	21	35(17.9)	3.26±0.43		
	22 over	102(52.3)	3.26±0.60		
Grade	Grade 1	66(33.8)	3.34±0.51	1.549	0.215
	Grade 2	72(36.9)	3.19±0.57		
	Grade 3	57(29.2)	3.31±0.5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94(48.2)	3.20±0.50	4.722	0.031
	Yes	101(51.8)	3.35±0.58		

4.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선택확신, 전문직업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진로결정수준과 전문직업성 간의 관계($r=0.770$)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수준과 전공선택확신 간의 관계($r=0.602$)가 다음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선택확신과 전문직업성 간의 관계($r=0.566$) 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major selection conviction,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 level	Major selection conviction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 level	1		
Major selection conviction	.602***	1	
Professionalism	.770***	.566***	1

*p(0.05, **p(0.01, ***p(0.001

5.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 검증

치기공과 학생의 전공선택확신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먼저 전문직업성을 종속변수로 한 1단계 회귀분석에서 전공선택확신($\beta=0.761$)은 전문직업성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 연령($\beta=0.285$), 전공선택확신($\beta=0.584$)이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역시 충족시켰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전문직업성을 포함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3

단계 회귀분석에서 연령($\beta=0.294$)과 전공선택확신($\beta=0.404$)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업성($\beta=0.246$)에 있어서도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즉 전공선택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의 매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areer decision level

	IV	DV	B	SE	β	t
Level 1	Gender	Professionalism	.089	.064	.081	1.394
	Age		-.013	.023	-.039	-.554
	Grade		-.036	.058	-.052	-.614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54	.031	.123	1.762
	Major selection conviction		.682	.043	.761	15.835***
adjusted R ² =0.593, F=56.918***						
Level 2	Gender	Career decision level	-.093	.092	-.071	-1.010
	Age		.108	.033	.285	3.263**
	Grade		-.084	.084	-.102	-.994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05	.045	-.009	-.101
	Major selection conviction		.618	.062	.584	9.927***
adjusted R ² =0.390, F=25.671***						
Level 3	Gender	Career decision level	-.127	.090	-.097	-1.406
	Age		.112	.032	.294	3.466**
	Grade		-.087	.082	-.106	-1.056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16	.044	-.030	-.355
	Major selection conviction		.430	.093	.404	4.624***
	Professionalism		.292	.103	.246	2.828**
adjusted R ² =0.423, F=24.493***						

*p<0.05, **p<0.01, ***p<0.00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전문직업성은 전공선택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매개변수임이 밝혀졌다.

Table 6. Significance test of mediation effect of professionalism

IV	Me	DV	IV→Me, B(SE)	Me→DV, B(SE)	Z
Gender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 level	0.089(0.064)	0.672(0.071)	1.376
Age			-0.013(0.023)		-0.564
Grade			-0.036(0.058)		-0.61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054(0.031)		1.713
Major selection conviction			0.682(0.043)		8.128***

*p<0.05, **p<0.01, ***p<0.001

IV. 고찰

치기공과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관심 등을 바탕으로 대학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양성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대학의 미래와 해당 직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강명숙, 2015; 심호규와 강문희, 2007; 정혜연, 2009). 이를 위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치기공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로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한 전공선택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이 수반되어야 한다(허혜라, 2006). 이에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제고와 대학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선정 등(2014)의 연구에서 실습경험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인오와 이경완(2010)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통해 미래의 직업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실습과 전공선택, 전문직업성 등에 대한 타 분야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Christie 등, 1985).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화식 등(2011)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었다.

한편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전공선택확신, 전문직업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문직업성을 매개로 전공선택확신이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자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가능성이 전공만족과 진로탐색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강명숙(201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사료된다. 즉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전문직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치기공과 학생의 합리적인 진

로결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흥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질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단순히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입학하고, 주어진 전공에 따라 불안한 진로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은 개인의 발달과 직업적 발전에 치명적일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 관심 등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공선택확신과 전문직업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합리적인 진로결정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는 치기공과 학생을 전문직업인으로서 양성하여 향후 직업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분석을 통해 전공선택확신과 진로결정수준, 전문직업성 척도의 신뢰성을 파악하였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다원일변량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확신은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M=3.40)이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학생(M=3.23)에 비해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2세 이상(M=3.26)에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M=3.35)이 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질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4.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전공선택확신(p<0.001), 전문직업성(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p<0.01), 전공선택확신(p<0.001), 전문직업성(p<0.01)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업성은 전공선택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001).

REFERENCES

-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1986.
- Choi YJ. The Effects of sense of values · major satisfaction ·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Dept. of Beauty Arts The Graduate School of Seokyoung University, 2015.
- Christie BA, Joyce PC, Moeller PL. Fieldwork experience, Part II: The supervisor's dilemma.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9(10), 675-681, 1985.
- Harren VH.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4.
- Hur YR.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and curriculum evalu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6.
- Jeong HY. The effects of parental career expectation and to consider whether the impact of the aptitude of the student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self-esteem: focusing on students' perception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09.
- Kang MS.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2015.
- Koh HJ.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 Lee HS, Bae BJ, Chang KW. Research on the major sele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J Kor Acad Dent Tech*, 33(4), 427-440, 2011.
- Lee YS.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delphi techniqu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2.
- Maslow A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1943.
- Ministry of Education. College development plan. 2013.
-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2010.

Moon SJ, Ku IY, Choi HY, Ka KH. Study of on- and off-campu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6793-6803, 2014.

Osipow SH, Carney CG, Winer J, Yanico B, Koschier M.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1980.

Shim HK, Kang MH. Th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therapy, 7(1), 1-17, 2007.

Tolbert E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0.